

GGM 비노조원 “노조 상경집회는 일자리 위협 행태”

“지속가능 미래 힘 모으자” 호소
“생산능력 증명 고객 신뢰 쌓아야아”
“대다수 사원 상경투쟁 동조 안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최근 서울 더블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상경 집회를 실시한 가운데 GGM 비노조원들이 내부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GGM에 따르면 전날 그룹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상생실천협)’ 위원들이 점심시간 구내식당 앞에서 이번 상경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유인물을 배포했다. 상생실천협은 노조 자격이 있는 대리급 그룹장과 파트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상생실천협은 “GGM은 중대 기रो에 섰다. 각종 리스크와 우려를 극복하고 염원인 2교대 생산 체제로 회사 지속가능과 고용 안정을 이룰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라으로 떨어질지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부 사원들이 고객사를 찾아가는 것은 GGM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사원은 이러한 일부 생각·행동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GGM은 고객사로부터 생산물량을 수주받아 운영하는 위탁생산회사다. 규모와 생산 체계로 봐도 고객사에는 영향이 미미해 상경투쟁이 자칫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 사원이 바라는 2교대 생산체제와 추가 차종 도입의 지름길은 대기중인 주문물량을 계획대로 소화하고 생산능력을 증명해 고객사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등보다 협력으로,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감정적인 투쟁이 아닌 회사 출범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라는 대전제 아래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 우리의 뜻이 멀리·깊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GGM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회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첫 노사민정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GGM은 지난 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결렬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수개월간 이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GGM 경영진과 노조 모두에게 GGM 설립 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준수와 노사 문화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파업권을 잃을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GGM 총 직원 687명 중 노조원은 228명(노조측 주장)이다. 홍승현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점심시간 구내식당 앞에서 최근 노조의 상경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GGM 상생 실천협의회 제공

광주은행, 중기퇴직연금사업자 용자 지원

고용부·신보기금과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 및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용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

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가입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 영업점에 퇴직연금 상담전담 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주요 거점에는 WM 특화점포를 운영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산운용 및 수익률 관리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도 현재 300여 종에서 연내 400여 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고스트패스가 광주지역 최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고스트패스 제공

고스트패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광주 최초...세계시장 기술력 입증

㈜고스트패스(대표이사 이선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분야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며, 광주지역 최초로 해당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고스트패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데 따른 것으로, 고스트패스는 2025 CES에서 생체인증 기술로는 최초로 핀테크 부문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하며,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탈중앙화 온디바이스 인증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글로벌 개인정보보호규제(GDPR

등)에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고스트패스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생체정보만으로 출입 인증, 결제, 근태관리까지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도어락, 스피드게이트, 무인POS, 테이블오더 시스템 등 생활의 보안 및 금융 분야에 적용 중이다. 서버 기반 인증 방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유연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으로 고스트패스는 향후 3년간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기술 고도화, 대기업 협업,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내 입지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연수 기자

“곡성세계장미축제, 동행축제와 함께 즐겨요”

오늘 개막...우수 소상공인 2곳 참여 기차마을시장서 ‘칙칙폭폭 야시장’

5월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곡성세계장미축제’가 16일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15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정부·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전국적으로 총 1조 3,000억 원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장

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를 주제로 낮에는 장미의 화사함, 밤에는 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야간 장미의 매력을 선보인다.

그간 광주전남중기청은 곡성세계장미축제와 동행축제를 연계했다. 축제 인지도 제고, 방문객 증가, 판매전 참여기업 매출 증대 등 여러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산품판매전을 운영해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곡성 지역 대표 농·특산물 생산자가 참여하는 이번 판매전에는 멜론과 꺾임채를 비롯해 토란 가래떡, 토란국수 등 21개소, 96개 품목의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17~18일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kbc

우리동네좋드만마켓’을 축제현장에서 진행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제품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축제와 연계해 곡성기차마을시장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일환으로 ‘칙칙폭폭 야시장’이 열린다.

장미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먹거리, 기념품, 특산물 등을 선보이며 저녁 시간대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순석 광주전남중기청장 직무대리는 “동행 축제기간 다양한 지역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축제에 방문해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매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세무서 신고창구 방문 애로 청취

고려인마을·충장로상인회서 소통 직장인 ‘수요 야간 발급 서비스’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4일과 15일 광주세무서와 정읍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면서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신청에 어려움이냐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하고, 내방객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되, 도움이 필요해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청장은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과 광주 동구 충장로상인회를 방문해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수요 야간 신고창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정읍세무서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정기신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JCIA, 웹소설 플랫폼 연재지원 참가자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웹소설 플랫폼 연재지원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작 역량 증진과 IP 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남도 스토리뱅크 구축 운영사업’의 일환이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 소재 웹소설 작가 또는 IP 보유 사업자로 연평과 팀 규모 제한은 없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웹소설 창작 멘토링 및 사업화 컨설팅 △웹소설 플랫폼 소속 PD/MD 특강 △웹소설 플랫폼 블라리스 연재 지원

△온라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웹소설 플랫폼 블라리스(<https://www.blice.co.kr>)는 KT그룹사 ‘스토리위즈’가 운영하는 웹소설 플랫폼이다. 다채로운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작가 생태계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작품 출간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heejae@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